

# “기초학력 문제 더 심화”

김희수 도의원,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교사 행정업무 경감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담야  
“공교육 책무 강화,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 해소” 개정 필요성 강조

전라북도의회 농산임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희수 의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시대에 따라 내용과 방법 및 격차의 차이는 있었으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코로나19는 미증유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심화된 기초학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원 수급 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

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의 구조적 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원채용 규모가 조정되어 담당 교원의 지정마저 어려워지고 있어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수급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시대적 화두이자,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해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예비군의 날 기념식’ 지난 7일 전북도청 4층 회의실에서 창설 제55주년을 맞는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오혁재 35사단장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군 육성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예비군 호재동대 인제홍 동대장을 비롯한 10명에게 도지사 표창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

14일까지...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처리 등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는 10일 부터 14일까지 제399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5월에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사전절차로 각종 동의안 등 접수된 의안 37건을 심사한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먼저 10일에는 개회식을 한 뒤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제399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한다. 이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유보통합 정책 추진 인력 배정 및 국고 지원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하고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한다.

본회의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화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활동을 실시하여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21대 국회 입성 진보당의 포부

“진보민주세력 단결  
검찰독재에 맞설 것”  
“강성희 의원에 지지 보내준  
전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  
시민께 약속한 법안 통과  
새로운 전주 만드는데 최선을

진보당이 21대 첫 원내 입성과 관련해 “진보민주세력 단결로 검찰독재에 맞서 싸워 꼭 이기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지난 8일 대변인실 명의로 낸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실현하는 진보 정치를 보여겠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전날(9일) 전북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 시켰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를 재선에선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전체 유효투표 중 1만7,382표(39.07%)를 얻어 당선됐다.

진보당은 “강 의원에겐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전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입가가 바로 시작되는 만큼 의정 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전주 시민에게 약속한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고 새로운 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수개월 동안 진보당과 강 의원이 전하고자 했던 진심의 정치, 새 정치를 이제 국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과 민생을 바라보며 달려가겠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 “붕괴 위기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을”

권요안 도의원,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우 암소아지 산지가격은 232만 원으로 전년(355만 원) 대비 34.4%가 폭락한 반면 사료값 인건비를 비롯한 농가 비용은 폭등해 한우농가는 생산비조차 보전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권 의원은 “지금 상태라면 전체 한우농가수는 2022년 약 9만에서 2025년에는 6만 후반대로 2만 농가 이상이 폐업할 것으로 예측돼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고 특히, 기업지분의 가축 사육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이제라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의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기자

## 국힘 정운천 의원

전북도당위원장직 사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4·5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비례대표)은 지난 7일 오후 9시 입장문을 통해 “더 낮은 곳에서 생발통 정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 위원장은 “2020년 국민의힘은 호남 없이는 정권교체도 전국정당도 없다는 신념 아래 국민통합위원회와 호남동행국회의원단을 출범해 서진정책을 시작했다”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로 19대 대선 당시 3.3%에 불과했던 전북 득표율이 20대 대선에서는 14.4% 역대 최고득표율을 기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17.88%,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15.54% 등 변화의 물결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하지만 이번 전주시를 재선거에서 김경민 후보가 8% 득표율을 얻으며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의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됐다”며 “전북 선거를 총괄한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원진무장 지역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무주에서 열린 정책협의회.

## 민주 안호영 의원, 완진무장과 릴레이 정책 협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원주·진안·무주·장수)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각 지역별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6일 진안군·무주군에서, 10일 완주군·장수군 순으로 잇달아 정책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2024년도 지역별 중점 국가예산사업 확보 방안과 주요 현안 민원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1일차 정책협의회는 진안군에서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전용태 전북도의원,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진안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

부처 예산심의와 관련해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준비단계부터 같이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책협의회에서는 국도 26호선(원주소양~진안부귀) 도로개량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오후에는 무주 최복미수관 다목적 영상관에서 무주군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윤정훈 도의원,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무주군은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한 대형 국비 사업에 협조를 요구했다. 주요 및 당면 현안에 대해서는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등 총 11건의 사업을 건의했다.

/진안=우태민기자·무주=전문선기자

군민과

공감하고

함께 하는

상생의희

**장수군의의회**  
http://council.jangsu.go.kr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